

장흥임씨 출토의복 보수(補修)에 관한 연구

- 중요민속자료 112호 -

안 명 숙* · 이 미 식**

광주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Mending Work Based on the Excavated Costume of Jang Heung Lim's

Myung-Sook Ahn* · Mee-Sik Lee**

Professor, Dept. of Design,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2004. 5. 21 투고)

ABSTRACT

Jang Heung Lim's is a nephew's wife of Kim Duk Ryung, who had been served as a general of Chosun dynasty. When her Tomb was removed to another places there were excavated some articles such as six Korean traditional costume, Korean socks, Korean shoes(Mituri) and so on.

The unearthed costume was designated as a monentous folk materials, No.112, and placed on Gwangju folklore museum. At that time, the mending work in the lost part of costume was not implemented. Only an act of textile conservation was worked.

In the article, we go through the mending principles and mending methods in damaged parts of costume.

First, the mending principles on the damaged costume are as follows :

① minimize the repaired parts, ② mend the only damaged parts, ③ use the same color and cloth as that of original ones, ④ use the appropriated stitching method ⑤ act the fixed framework in case of missing a outer cloth.

Second, the mending method related to the damaged part are as follows :

① the repairing method in the bodice and sleeve part of costume, ② the repairing method in the hem of sleeve, ③ the repairing method in the collar of costume, ④ the repairing method in the armpit part of costume, ⑤ the repairing method in the connecting parts between one and another width of Korean traditional long skirt.

With this article, we wish that the repairing method in the cultural costume will be developed scientifically and specified efficiently.

Key words : the excavated costume(출토복식), Jang Heung Lim's(장흥임씨),

the mending principles(보수원칙), mending methods(보수방법), the damaged part(파손부위)

I. 머리말

복식이란 인간의 생활 속에서 생겨나와 생활과 공존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의지와 감정을 가장 잘 나타냄과 동시에 당시의 생활상과 사회상을 잘 반영한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의 사회상을 살피거나 역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당대 복식의 특징을 관찰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 된다.

최근들어 출토복식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출토복식 연구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출토복식의 보존처리 및 보수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이는 역사연구에 대한 출토복식의 기여도를 감안할 때, 보존방법 및 보수방법의 체계적 정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고서나 연구논문이 출토직물, 보존처리, 복식의 형태적 특징 등을 다루고 있으나 출토 후 오랜 기간 잘 보관하기 위해 행해지는 보수법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발표된 연구들이 거의 없다.

보수란 찢어지거나 부분적으로 손상된 부분을 서로 연결하거나 공간을 메꾸어 주거나 풀어진 주름 등을 다시 잡아 형태를 보다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¹⁾하는 과정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수방법 역시 개인²⁾에 따라서 견해차를 가지고 있어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주를 정해주고 있을 뿐 보수에 관한 지침서도 없고 적절한 문헌배경을 찾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유물의 유실이나 손상이 가중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수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흥임씨 묘 출토의복의 종류와 형태를 살펴보고, 보수의 기본적인 원칙과 옷의 구성법에 따른 보수법을 살펴본 후 장흥임씨 의복의 파손부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파손부위별로 보수방법을 샘플작업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를 통해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활발한 보수작업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연구결과 또한 많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II. 장흥임씨 의복의 출토 및 보수배경

長興任氏는 忠壯公 金德齡장군의 동생 德普의 子婦이다. 남편의 휘(諱)는 거취(據醉), 자는 휴서(休

瑞), 호는 풍계(楓溪)이며 1593년생이다. 1615년 진사가 되었으나 伯父 德弘이 임란 때 錦山 전투에서 전사하고 이어 仲父 덕령이 임란 때 武功을 세우고도 오히려 참소되어 억울하게 죽자 충격을 받아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³⁾.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장흥임씨 의복은 1971년 묘소 이장 때 출토되었으며, 유족들은 목곽, 목관 및 의복 일괄을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 기증하여 보관 중 1974년 김덕령장군 묘소에서 나온 의복과 함께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 의복들은 1985년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⁴⁾에서 이미 보존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당시 보수는 하지 않고 두었던 것을 손상된 부위가 많아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금번 광주대학교⁵⁾에 맡겨져 보존과 보수를 함께 하게 되었다. 장흥임씨 복식이 6점이므로 다른 유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정된 보수방법일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보수방법은 같을 것이다.

장흥임씨 출토복식은 의복 6점과 버선, 직물류, 미투리였으며, 의복은 중요민속자료 112호로 지정되었고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에 기증되어 관리되고 있다⁶⁾.

III. 장흥임씨 출토의복의 역사적 배경 및 종류

장흥임씨 의복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의복들로 여자 분묘이므로 조선 중기 여자의 복식 형태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대부분 여자 분묘에서는 장의, 저고리, 치마, 단속곳 등이 나타난다⁷⁾. 장흥임씨 분묘에서 출토된 복식도 비슷한 종류가 출토되었으나, 여자의 분묘에서 처음으로 철릭이 출토된 것은 특이하다. 남자의 것을 넣었다기 보다는 형태 등의 아름다움에서 이 당시 여자도 철릭을 입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출토된 복식 수량은 6점으로 적으나 저고리나 포의 깃모양, 소매배래 모양 등에서 조선 중기의 의복 형태를 알 수 있다. 깃은 칼깃(반달모양)이고, 저고리 배래선은 거의 직배래이며, 길의 형태는 직선길과 사선길이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바지는 맞주름이 잡힌 사폭바지이며 묘 이장 당시 시신이 입고 있

었던 옷으로 가위로 잘라 손상되었다.

출토된 장홍임씨 의복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색무명솜누비저고리

소색무명솜누비저고리는 뒷길이가 72cm로 길며, 화장도 95cm로 길다. 솜을 두겹게 두었으며 5cm 간격으로 크게 누볐다. 바느질 솜씨는 곱지 않게 성글게 되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무를 달아 활동에 편리하게 되었다. 깃 모양은 겹깃은 둥근 칼깃이며 안깃은 거의 목판깃에 가깝다. 화장이 길었으며 거의 직배래에 가깝다. 출토 당시 이미 보수해서 기운 흔적이 여러 곳 있어 평상시 입던 옷을 넣었던 것으로 보이며, 보수된 천이나 바느질 등이 상당히 거칠었다.

2) 소색무명홀저고리

소색무명홀저고리의 뒷길이는 62cm, 화장은 68cm로 크기가 작은 편이며 당의 형태로 양옆 도련선도 굴려졌고 14.5cm 정도 옆트임 처리가 되었다. 겹깃은 둥근 깃이며 안깃은 거의 목판깃 형태이다. 등바대와 겨드랑이, 옆트임에 바대 처리가 되었으며, 파손된 부분이 여러 곳 있다. 홀옷임에도 바느질은 그리 곱지 않았다. 소매의 수구부분은 가진세로 되어 있다.

3) 소색무명홀철릭

소색무명홀철릭은 옷길이가 128cm로 上衣 51cm, 下裳 77cm로 상의와 하상의 비율이 1:1.5 정도로 16세기 후반부터 출토된 철릭의 특징이 상의와 하상의 비율이 1:1.4에서 1:1.9를 이루는 것⁸⁾과 마찬가지로 같음을 알 수 있다. 화장은 127.5cm 이며 왼쪽 소매에 쌍미리 단추가 6개 달려 있으며, 하상은 12폭이다. 하상의 주름은 1.5cm 내외로 잡혀 있다. 홀철릭의 하상 부분에 출토 전 입던 옷이었음을 알 수 있는 보수 부분이 있는데, 보수 부분의 바느질이 상당히 꼼꼼하게 되어 있다. 통솔로 바느질하였으며 바느질된 부분은 본 바느질보다 더 꼼꼼하게 되어 있다. 최근 출토되어 발표된 심수훈 묘에서 출토된 직령⁹⁾에도 보면 거의 장홍임씨 홀철릭과 비슷한 바느질이 보인다.

4) 솜직령(장의)

안감과 솜만 남아 있어 정확한 형태를 알기는 어렵

다. 겹감에 명주가 사용되었다고 초기 출토 보존처리에 기록¹⁰⁾되어 있으나 어디를 보아도 명주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아 명주이기에 더 빨리 삭아 없어졌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출토 의복 중 명주가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뒷길이는 119cm, 화장은 117cm로 상당히 길었다. 또한 여자의 분묘에서 출토되었고 겹감이 없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소매 통이 좁고 긴 것 등 여러 가지로 보아 장의로 보인다. 여자 직령이기 때문에 솜장의라 명칭을 붙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미 남도지역 출토복식을 다룬 논문에서 장의¹¹⁾라고 명칭을 붙인 바가 있다.

5) 소색무명솜바지와 소색무명홀바지

소색무명솜바지는 상당히 두껍게 솜을 두었으며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나 시신에서 벗겨낼 때 찢어서 좌우로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솜바지의 길이는 83.5cm이며 앞에 맞추름이 잡혀 있다.

소색무명홀바지는 형태는 솜바지와 거의 같다. 시신에서 벗길 때 찢은 것도 솜바지와 같다. 바지길이는 72cm로 솜바지보다 짧아 안에 입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IV. 출토의복 보수에 관한 일반적 원칙

섬유류 유물의 보존처리 및 복원작업은 20세기에 들어서서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계획사업에 의한 각 문중들의 이장 작업시 출토되는 복식 및 섬유류 유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출토복식들은 지상로의 노출과 함께 일광·온도·습기·산소의 존재로 인해 취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빨리 적당한 조건하에서 세척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¹²⁾.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보존처리에 관한 연구는 이미 수해 전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¹³⁾. 그러나 보수에 관한 연구는 개인에 따른 차이와 과학적 데이터 부족 등으로 많은 발표가 되고 있지 않다. 유물 중심의 실질적인 보수는 많이 되고 있으나, 보수한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는 없는 편이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짧은 보수기간으로 보수 작업시 연구발표에 대한 여력이 없음과 보수방법에 대

한 선행연구들이 없어 후속 연구들을 발표할 기회가 없어서 인 것 같다.

장홍임씨 출토복식은 대부분이 무명이며 소재로 되어 있어, 보수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재와 색, 문양 등이 있는 복식유물들의 경우보다는 수월했다.

출토의복 보수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옷의 구성에 따라 달리 행해지는 보수법에 대해 살펴본다.

1) 출토의복의 보수원칙

(1) 보수의 기본적인 원칙

보수를 위해서는 출토의복의 정확한 섬유 및 직물 분석과 면밀한 형태 검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출토 당시 복식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잘 보관해 제 조각으로 부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많이 파손된 경우는 완전한 형태로의 복원은 불가능하다. 많은 부분이 손상 및 떨어져서 없어져 형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보수시 중요한 것은 보수천, 보수바늘, 보수실, 옷감에 맞는 보수방법 결정, 보수환경 등이다.

일반적인 보수원칙과 적용된 예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보수 바느질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보수하는 장소의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 유물이 오랜 기간동안 지하에 매장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상온에서 보수작업하면서 섬유의 열화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보수작업 하는 환경의 온/습도를 적당히 맞추어서 출토의복의 건조상태를 막으면서 작업을 해야 한다.

(2) 옷의 구성법에 따른 보수원칙

출토복은 홑옷, 겹옷, 솜옷, 누비옷 등 다양한 구성방법으로 지어진 옷들이므로 각 구성법에 맞는 적합한 보수가 되어야 한다.

홑옷은 손상부위에 맞게 보수천을 적당하게 사각형으로 자른 후 가장자리를 먼저 고정시키기 위해 시침하고 손상부위를 보수천과 함께 홈질로 곱게 바느질하였다. 보수천의 가장자리는 울을 풀어 주었다.

장홍임씨 유물에는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겹옷 보수법은 겹감만 떨어져 나간 경우는 겹감만 대어서 시침부분을 안으로 집어넣은 후 부분 보수한다. 겹·안감 모두 없는 경우도 구멍이 생긴 경우이므로 섬유의 열화가 심한 경우는 겹·안감 따로 대지 않고 함께 한 번에 대어서 바느질하는 것이 옷감을 덜

<표 1> 출토의복 보수의 기본적인 보수원칙

보수원칙	내용	적용 예
1. 최소한의 보수를 한다.	유물이므로 꼭 해야 할 부분만 함	·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심하게 파손된 곳만 함
2. 손상된 곳만 보수한다.	파손이 심하더라도 형태를 알 수 있는 곳의 보수만함	· 깃이 없는 데 추측해서 만들어 넣지 않으며, 한쪽 소매가 없더라도 추측에 의해 만들어 넣지 않음
3. 동일소재, 동일색상의 보수천을 사용한다.	원래 천과 가장 비슷한 보수천 선택	· 원래천은 많이 손상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같은 소재로 하되 가볍고 고운 천으로 보수 · 보수천으로 인해 오히려 원래 천이 손상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 · 색상은 땅 속에서 변색될 수도 있으나 현재 출토 된 유물색과 거의 비슷한 색으로 천연염색하여 사용
4. 보수부위의 보수천을 최소한의 크기로 댄다.	규칙적이지 않은 손상 부위에 과도하게 큰 천 대지 않음	· 천을 크게 붙일 경우 보수천으로 인해 늘어짐, 변형 등의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작게 하여 여러개로 붙임 · 부득이하게 가까운 부분에 여러 곳에 손상이 있는 경우는 큰 천을 사용하여 함께 손상부위를 보수
5. 적합한 보수바느질을 한다.	홈질, 시침질, 감침질 등	· 손상부위는 홈질, 가장자리는 시침질, 도련단 등은 감침질 등으로 하여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함
6. 겹감이 없는 경우는 고정틀만 댄다.	· 정확한 형태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안감과 솜만 남은 경우	· 겹감이 없는 경우는 고정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대어 주었음

손상시키게 된다. 중요한 것은 보수 후의 미관이 아니라 섬유를 손상시키지 않는 보수를 하는 것이다. 섬유의 열화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경우는 걸·안감을 각각 따로 대어 보수해도 괜찮다.

솜옷은 특히 장흥 입씨의 소색무명솜누비저고리 경우 손상된 부분이 군데군데 작은 부위로 많았다. 또한 누비라고는 하지만 누비간격이 5-6cm 정도이므로 상당히 커서 보수하기에 불편하지는 않았다. 고운 누비의 경우는 보수방법을 달리 해야 하고, 김덕령장군 의복 보수 때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가장자리가 헤어진 경우(설프부분, 앞도련, 뒷도련, 소매끝 부분)는 더 이상 헤어지지 않도록 감침으로 고정시켰다. 솜이 없는 경우는 얇게 솜을 넣고 그 위에 겹감이든 안감 부분이든 보수천을 댄 후 흠질하였다. 걸·안감·솜이 모두 없어 구멍이 난 경우는 겹감용 보수천을 먼저 파손부위에 대고 바느질하고 안으로 뒤집어서 속에 솜을 얇게 두고 이때 기존의 솜과 따로 움직이지 않기 위해 솜과 연결시키는 시침바느질을 몇 군데 해 주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따로 떨어져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안감용 보수천을 대고 겹감과 마찬가지로 파손부위와 보수천을 흠질하여 바느질하였다.

V. 장흥입씨 출토의복의 보수법

김덕령장군 의복과 함께 16세기 복식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장흥입씨 의복 6점은 대부분 의복의 형태는 완전하고 부분별로 파손이 많았다. 특히 홀칠릭은 파손이 너무 많아 보수시 상당히 조심을 요하였다. 겹깃부분도 파손이 많이 되었으나 겹깃자극과 겹깃의 안감 부분이 남아있어 그 형태를 만들어 넣을 수 있었다. 가능한 한 원형 보존이 잘 되기 위해서는 보존이나 보수는 출토 당시 바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흥입씨 의복은 유물의 수량은 6점으로 적으나 겹옷만 없을 뿐 홑옷, 솜옷, 누비옷 등 구성 형태는 다양하였다.

1) 보수용 옷감과 실

출토의복을 보수할 경우는 먼저 옷감의 종류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파손부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수가 되어야 할 지를 정밀하게 점검한다. 원래 유물의 색에 맞게 보수 천과 보수 실을 준비한다. 보수천은 원래 직물이 오랜 세월이

<표 2> 출토의복의 종류와 손상상태 및 보수진단

유물 번호	출토의복의 종류	상태	보수 진단
112-1	소색무명 솜누비저고리	완전한 형태, 부분 파손 많음	·솜과 누비로 되어 있고 파손 부분이 작게 많음 ·섬유가 많이 손상되어 있어 심한 보수 시 오히려 더 손상될 수 있음 ·최소한의 보수 요함
112-2	소색무명 홀저고리	완전한 형태, 부분 파손 많음	·손상 많음 ·직물이 많이 손상되어 만지면 헤지는 것이 염려되어 최소한의 보수 바람직 ·천이 도톰하고 홑옷이어서 보수 어렵지 않음
112-3	소색무명 홀칠릭	완전한 형태, 심한 파손	·손상 부위 심각 ·없어진 옷감의 부위도 상당히 큼 ·없어진 부위도 자극 등으로 형태가 남아있음 ·특히 겹깃부분과 소매의 끝 부분 손상 많음 ·손상은 많으나 무명이므로 형태 복원 가능
112-4	솜직령 (장의)	안감과 솜만 있음, 겹감 없음	·겹감이 없어 정확한 형태 알 수 없어 보수 못함 ·솜과 안감만 남아 고정 틀을 만들어서 댄
112-5	소색무명 솜바지	완전한 형태, 출토 당시 시신에서 벗기기 위해 가위로 자름	·가위로 잘리기만 했을 뿐 다른 파손 부위는 없음 ·솜바지이므로 겹감과 솜 사이, 안감과 솜 사이에 보수 천 넣고 보수
112-6	소색무명 홑바지	"	·가위로 잘리기만 했을 뿐 홑옷이므로 보수 수월

지나 많이 손상되었으므로 유물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전통소재를 고른다. 바느질도 원 직물보다 강도가 조금 약한 실을 사용하는 것¹⁴⁾이 바람직하다.

각 유물의 훼손 부분은 동일한 직물소재를 선택 하되 노화된 상태의 유물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아주 열화가 심한 경우에는 오래된 소재를 사용하여 열화상태가 비슷한 옷감을 찾아서 보수하여 최대한 원형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봉실도 인장강도를 시험하여 노화정도가 진행된 실을 사용한다¹⁵⁾.

원래 천이 많이 열화되어 약해져 있으므로 보수 천과 실 선택시 원래 직물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보수천으로는 새 옷감보다는 오래 보관되었던 옷감일수록 원래 옷감에 덜 손상을 미칠 것이며, 아니면 옷감을 열화 시켜서 사용한다.

2) 보수용 옷감 염색

보수용 옷감이 결정되면 유물과 비슷한 색을 내기 위해 천연염색 한다. 실도 함께 염색해서 사용한다. 장흥임씨 의복 보수천은 소색이지만 기존의 새 옷감과 색이 많이 달라 5번 정도 염색을 하면서 어둡고 깊이 있는 소색을 만들었다. 사용된 염제로는 사방오리나무, 괴화, 뽕나무잎, 커피, 황백 등이며 매염제로는 철침액을 사용하였다. 출토유물의 색과 똑같은 수는 없어도 가장 비슷한 색을 만들기 위해 어느 한가지 색으로는 불가능하여, 괴화 염색 후 사방오리나무 다시 커피로 염색을 하는 등 여러번 반복하여 색을 얻었다.

3) 보수 바느질

보수 시 바느질도 무조건 곱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원래 옷감이 무엇인지와 옷감의 열화정도, 손상부위의 파손정도, 보수천의 조직도 등에 따라서 바느질을 달리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촘촘히 할 경우 보수 바느질로 인해 원래 천이 미어지거나 뜯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직물을 파손시킬 염려가 있는 곳은 보수를 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바지와 같이 직선으로 손상부위가 큰 경우는 고운 바느질보다는 고정된 수준에서 0.5cm 간격으로 크게 흠질하였다. 손상부위가 적은 경우는 좀 더 곱게 바느질 하였다.

4) 파손부위에 따른 보수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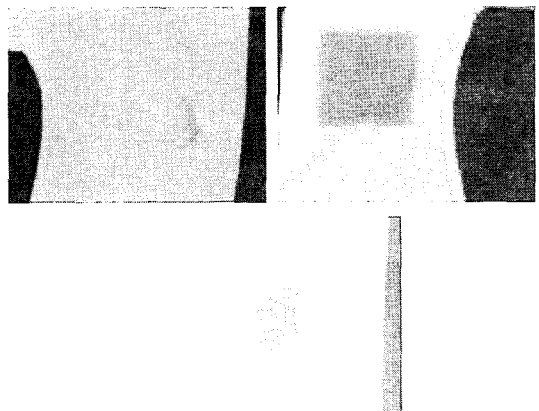
파손 부위를 정확하게 치수를 측정하여 적은 보고서도 있으나¹⁶⁾, 본 연구에서는 파손이 어느 정도 크기냐가 중요하기 보다는 어느 부위에 있는 파손인가가 보수를 할 때 중요하므로 파손 부위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나누어서 보수 방법을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보수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쉽게 보수 천만 대어서 할 수도 있고 보수할 곳의 모양을 만들어서 보수천을 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 파손 부위가 어디든 모두 공통되는 보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손 부위를 증류수를 뿌려 모양을 잘 정리하면서 진단한다. 둘째, 보수천은 여유분을 두고 마름질 한 후 가장자리는 울이 직선이든 사선이든 울을 풀어 주었다. 셋째, 파손 부위에 대고 편시침하여 고정시킨다. 넷째, 가장자리에서 0.5cm 떨어져 시침하여 고정시킨다. 시침하는 이유는 파손부위가 많은 압력을 받지 않도록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다. 다섯째, 파손 부위와 보수 천을 함께 흠질하여 보수한다.

파손부위에 따라 달리 행해지는 보수과정과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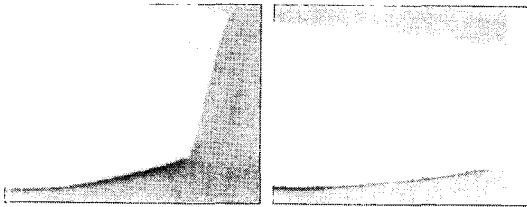
① 몸판이나 소매 등 어느 한 면이 파손된 경우 (홀저고리, 홀철릭, 숨저고리 등)

가장 손쉽게 보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 천을 보수할 곳보다 대략 사방 2cm 정도 크게 여유분을 남겨서 마름질 한 후 가장자리 울을 푼다. 무명홀저고리와 무명숨저고리의 경우 많은 부분이 이 방법에 의해 보수되었다.



② 소매 끝이 파손된 경우(홀저고리, 홀철릭)

소매 끝은 가진세로 댄 경우는 가진세로, 안단을 넣어 한 경우는 똑같이 안단 여유분까지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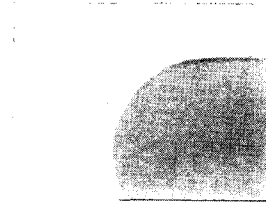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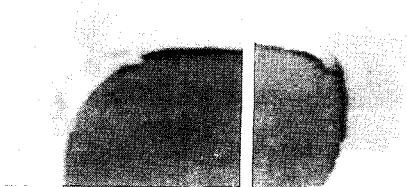
③ 옷깃이 파손된 경우(홀철릭)

옷깃의 형태를 알 수 없이 파손된 경우는 따로 대지 않는데, 본 유물의 경우는 겉깃의 일부와 자국, 안깃이 남아 있어 모양을 만들어서 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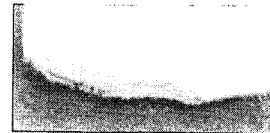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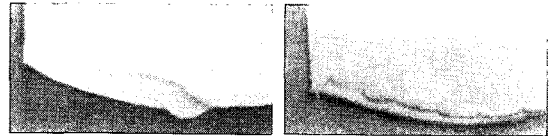
④ 겨드랑이 부위가 파손된 경우(홀저고리)

무명홀저고리는 겨드랑이 부위에 곡선 형태로 손상이 있어, 그냥 보수천만 대었을 경우 미어질 염려가 많은 곳이므로, 겨드랑이 부분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서 대고 파손된 부위를 그 위에 올려놓고 흙질로 바느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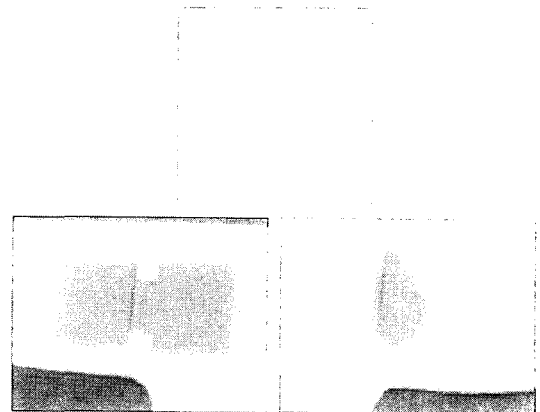
⑤ 소매 배래가 파손된 경우(홀철릭)

소색무명홀철릭은 소매가 배래선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잘려졌다. 이런 경우도 겨드랑이 부위가 파손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래 모양을 만든 뒤 그 위에 손상부위를 양쪽에 올려놓고 흙질로 바느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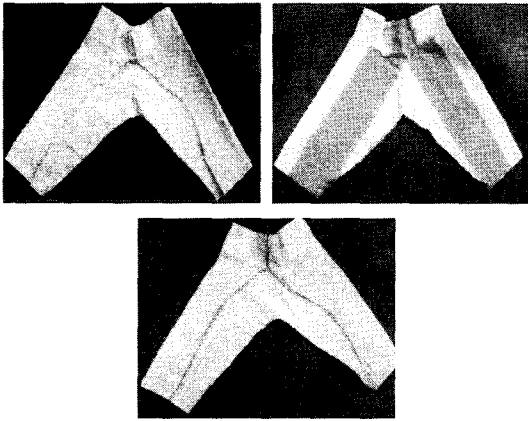
⑥ 길과 소매, 철릭의 치마와 치마 폭 연결 부위가 파손된 경우(홀저고리, 홀철릭)

길과 소매의 연결 부위가 파손된 경우, 파손 부위가 가진세로 되어 있으면 보수천도 똑같이 가진세로 만들어 연결하여 보수하였다.



⑦ 바지와 같이 가위로 잘려서 파손된 경우(숨바지, 홀바지)

이 경우는 옷감이 파손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인위적으로 가위로 자른 것이므로 조각이 없어지거나 구멍은 없었으며, 단지 잘린 천을 양쪽으로 잇는 것이다. 이 때 그냥 이을 수는 없고 홉웃은 사이에 보수 천을 대고 양쪽에서 따로 따로 홉질로 바느질 해 주었다. 솜웃은 길감쪽 보수천과 안감쪽 보수천을 따로 대어서 각각 홉바지처럼 양쪽에서 바느질하면 된다.



VI. 맺음말

유물이 섬유류라는 한계로 인해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되어 출토 당시는 많은 부분이 보기 흉한 경우가 많다. 장흥임씨 출토의복의 보수는 파손된 부위가 많고 파손 부위도 다양해 여러 가지로 복잡하였다.

본 내용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보수 시의 보수원칙과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보수하는 방법을 장흥임씨 출토의복에 나타난 부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출토 의복 수는 적었으나 다양한 부위에 손상이 있었으므로 홉웃·솜웃·누비옷 등의 구성법에 따라 다른 것 뿐 아니라 겨드랑이·배래·옷깃 등 파손 부위에 따라서도 다양한 보수법을 알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보수방법에 대한 여러 종류의 논문이 나오리라 기대된다.

유물 보수 시 유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최대한 원형 그대로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마음가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정된 작업시간에 해야 하고,

거의 노동에 가까운 일이므로 귀히 여기는 마음과 연구하는 자세 등이 없다면 한 올 한 올의 정성을 들여 그대로 보수한다는 것이 꽤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수천, 보수 바느질, 보수방법에 대한 것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체계화되어서 출토되는 복식을 후손에게 길이 남겨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1 국립민속박물관 (2000).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국립민속박물관, p. 73.
- 2 국립민속박물관, 석주선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등과 지역 박물관에서 해당지역 교수 중심으로 보수작업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3 광주광역시 (1999). 문화재도록, 광주광역시, p. 46.
- 4 안희균 외 3인 (1985). 중요민속자료 제112호 장흥임씨 수의류의 보존처리.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 6, pp. 1-16.
- 5 2003년 11.10-2004.1.17, 보수(광주대학교:안명숙교수) / 보존(서울여자대학교:이미식교수)
- 6 광주민속박물관 (2000). 조선중기 우리 옷. 광주민속박물관, p. 30.
- 7 장인우 (1995). 조선중기 출토복식 중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9.
- 8 장인우 (2002). 조선중기 솜털릭 구성에 대하여. 복식 52(8), p. 112.
- 9 경기도박물관 (2004). 심수륜 묘 출토복식. 경기도박물관, p. 120.
- 10 안희균 외 3인 (1985). 전개논문, p. 6.
- 11 안명숙 (2001). 남도지역 출토복식의 현황과 특징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2), p. 198.
- 12 배상경 (2004). 심수륜 묘 출토복식의 보존처리. 심수륜 묘 출토복식. 경기도 박물관, p. 56.
- 13 보존처리연구자: 박지선, 배상경, 배순화, 안춘순, 안희균, 이미식, 유효선, 등 다수.
- 14 박지선 (2004). 섬유문화재의 보존처리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 22, p. 56.
- 15 박성실·유효선 (2000). 하천 고운의 출토복식의 보존처리. 조선중기의 우리옷. 광주시립민속박물관, p. 98.
- 16 장인우 (1987). 출토 遺衣 및 근대복식은고, 조선 중기 저고리의 복원적 고찰. 충북대박물관, p. 74.